

## 21世紀 經濟 戰爭 : 協力 속의 競爭인가? <sup>1)</sup>

趙 洪 來 責任研究員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美國의 經濟學者 레스터 서로우(Lester Thurow) 교수는 그의 著書 「Head to Head」에서 世界는 이제 經濟 戰爭에 돌입했다고 진단하고 이 戰爭의 勝者가 21世紀 전반의 世界 經濟 秩序를 새로이 構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로우 교수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競爭者 간의 協力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21世紀 經濟 戰爭은 「協力 속의 競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21世紀는 經濟 戰爭으로 시작된다.....

1989년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東유럽 국가들의 共產政權이 崩壞됐다. 뒤를 이어 蘇聯 共產黨도 몰락하고 어느 美國 政治人<sup>2)</sup>이 서슴없이 '惡의 帝國'이라고 부르던 蘇聯 聯邦은 저절로 解體되기에 이른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 어떤 體制가 보다 効率的이고 어떤 思想이 歷史의 選擇을 받았는지가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와 같은 學者는 지금의 상황을 '歷史의 終焉'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러나 이제 歷史가 終焉을 맞이했기 때문에 심심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美國 MIT 大學의 經營大學院長이자 저명한 經濟學者인 레스터 서로우(Lester Thurow) 교수에 의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蘇聯이 해체되는 그 순간,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에 理念 對決과는 또다른 世界 戰爭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간된 그의 著書, 「Head to Head」는 바로 이 새로운 戰爭에 관한 책이다.

1) Thurow, Lester C., *Head to Head*, 1992, New York : William Morrow & Co.  
이 책은 국내에 번역서 「세계경제전쟁」(이근창譯, 고려원刊, 1992. 10)으로 출간되어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戰爭은 다름아닌 經濟 戰爭이며 戰爭의 참가자는 美國, 日本, 그리고 통합된 유럽이다. 戰爭에서 사용될 무기는 技術力과 熟練 勞動力 등의 人的, 知的 資本, 貯蓄性向과 投資 패턴 등의 經濟的 慣習, 그리고 文化的 同質性이나 다른 文化에 대한 包容力과 같은 社會的 要素이다. 戰爭의 勝者는 21世紀 前半의 世界 經濟를 支配한다. 그러나 19世紀의 帝國主義的 支配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새로운 世界 經濟 戰爭의 勝者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서로우 교수는 美國, 日本, 유럽이 모두 뛰어나고 각기 長短點을 지니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럽이 未來의 歷史家들에 의해 21世紀 初에 있었던 經濟 戰爭의 勝者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서로우 교수는 이 책에서 世界史와 各國의 近代 經濟史에 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현재 國際 經濟 狀況에 대한 精確한 分析을 토대로 앞으로 펼쳐질 世界 經濟의 큰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經濟 戰爭의 主役들인 美國, 日本, 그리고 統合 유럽이 지니고 있는 장점과 직면한 문제점도 설명한다.

서로우 교수의 분석과 진단에는 독자들이 절대적으

2) 前 美國 大統領인 로널드 레이건.

로 共感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世界 經濟가 더 이상 가트(GATT)-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體制로는 지탱될 수 없다는 주장일 것이다. 가트-브레튼 우즈 體制는 2차대전 후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經濟 強國이었던 美國의 주도로 이루어진 體制이며 그 후 40 년간 世界 經濟의 繁榮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이로니컬하게도 美國이 주도한 體制 아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성장한 두 개의 經濟, 즉 獨逸을 중심으로한 유럽 經濟와 日本 經濟가 그동안 美國 經濟가 차지하던 위치를 넘보게 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가트-브레튼 우즈 體制의 存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우 교수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體制를 대신할 새로운 國際 經濟 秩序의 確立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로운 體制의 成立과 存續을 위해서는 競爭 당사자들의 協力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21世紀 초반의 國際經濟는 우선 競爭國들이 서로 協力하여 새로 시작되는 게임의 룰을 정하고 나서 競爭하는 '協力 속의 競爭'(cooperative-competitive warfare)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結論이다.

그러면 게임의 룰이 일단 정해진 다음에 競爭國들은 무슨 武器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서로우 교수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 21世紀에는 한 國家의 國際 競爭力이 賦存 資源이나 歷史적으로 蓄積된 實物 資本의 量으로 決定되지 않고 國家가 소유한 知的 資本과 이를 生産 技術로 轉換할 수 있는 高級 熟練 勞動力의 존재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人爲적으로 만들어진 比較 優位가 자연의 혜택이나 歷史의 遺産으로 형성된 比較 優位보다 훨씬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서로우 교수는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財貨와 用役의 生産에 尖端 技術을 應用할 수 있으며 그 결과 生産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상기하며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sup>3)</sup>

3) 최종 생산물이 첨단 상품이 아니라도 생산 공정에 첨단 기술이 응용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유전 공학이라는 첨단 기술은 농산물의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자동차는 더 이상 첨단 상품이 아니지만 첨단 산업의 산물인 로봇에 의해 조립되고 있다.

21世紀 초반의 國際經濟는 우선 競爭國들이 서로 協力하여 새로 시작되는 게임의 룰을 정하고 나서 競爭하는 '協力 속의 競爭'(cooperative-competitive warfare)이 되어야 한다

### 競爭者들 : 美國, 日本, 유럽 .....

日本과 獨逸의 企業 文化는 英國과 美國의 그것과 다르다고 서로우 교수는 진단한다. 株主의 利益을 위한 組織인 英·美式의 企業과는 달리 獨逸과 日本, 특히 日本의 企業은 從業員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日本과 獨逸의 企業에게는 목표가 利潤 極大化가 아니라 企業 擴張과 長期的인 成長이다. 이들은 短期 收益性이 낮더라도 技術 開發에 과감히 投資한다. 貯蓄性向이 높은 것도 日本과 獨逸 經濟의 공통점이다. 日本과 獨逸의 經濟 發展史는 英國이나 美國의 것과는 다르다. 英國은 産業化를 먼저 시작한 長點을 누렸고 美國은 戰爭으로 인한 파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獨逸과 日本은 産業化의 後發 走者로서 선진국을 따라잡아야만 生存할 수 있었고 戰爭의 廢墟 속에서 經濟를 再建해야 했다. 그러니 당연히 政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企業도 그것을 원했다.

서로우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지난 40 년간 日本 經濟는 항상 이기기만 해왔다. 어떻게 보면 日本 經濟에는 短點이 없어 보인다. 다른 나라에는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여건도 日本 經濟에 적용되면 逆으로 작용한다. 엔화가 切上되면 貿易 黑字가 늘어나고 經濟가 不況이면 技術 開發을 위한 投資가 늘어난다. 그러나 日本 經濟에도 문제는 있다. 우선 生産 技術의 側面에서 보면 工程 技術(process technology)의 開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무엇을 처음으로 發明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물품을 좀 더 싸게, 좀 더 잘 작동되게,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것에 치우쳐 있다. 需要 側面에서 日本은 內需과 輸出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지나친 貿易 黑字와 文化-歷史의인 배경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經濟 協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럽이 統合되고 러시아를 비롯한 東유럽이 資本

主義로의 移行 過程을 순조롭게 마쳐서 統合 유럽의 一員으로 등장할 수 있다면 世界 歷史상 최대의 購買力을 가진 市場이 탄생하게 된다.<sup>4)</sup> 供給 側面에서 볼 때, 러시아의 尖端 技術, 獨逸의 生産 技術, 英國의 金融 技術, 프랑스와 이태리의 디자인 技術이 합쳐지면 統合 유럽은 世界 最高 品質의 物品과 서비스를 生産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東유럽의 성공적인 資本主義化가 관건이다. 生産과 流通의 非効率<sup>5)</sup>, 基礎 生必品の 절대 부족, 價格 體系의 혼란 등 산적한 문제가 빠른 장래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일이다. 다소 과장한다면 獨逸을 비롯한 서유럽은 4억의 人口가 한꺼번에 서쪽으로 몰려오는 사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이제 美國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아마도 美國의 문제를 서로우처럼 정확히 지적하는 學者는 드물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美國은 '大 城壁(great wall)'을 쌓고는 그 속에 들어 앉아 자신이 아직도 世界 最高이자 世界 經濟의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서로우는 '大 城壁'을 中國의 萬里長城(The Great Wall)에 비유하고는 中世에는 世界 最強이던 中國이 萬里長城 속에서 安住하는 동안 점점 衰落하여 19世紀에는 西歐 列強의 침략 대상으로 轉落했던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서로우에 의하면 美國人は 貯蓄을 너무 적게 한다. 民間 部門의 R&D 投資는 獨逸이나 日本의 절반 수준이다. 社會 間接 資本은 대부분 남아가고 있다. 世界 最高 수준의 大學 教育을 실시하고 있지만 高等 學校의 教育 水準은 솔직히 말해서 第 3 世界 수준이다. 물론 美國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21世紀의 軍事大國으로 남을 것이다.<sup>6)</sup> 그러나 막강한 軍事力만으로는 經濟를 再建하지 못한다. 서로우는 美國이 무너져 버린 城壁 밖을 내다보고 21世紀의 經濟 秩序는 美國이 아닌 유럽이나 日本에 의해 형성될지 모른다는 현실을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教育 革新과

4) 충분한 구매력을 지닌 8억 인구를 수용하는 시장이다.  
5) 구 소련에서 생산되던 6,000 가지의 물품 중 70%가 단 한 곳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의 수송은 거의 전적으로 철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6) 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길 때는 이미 로마의 전성기를 한참 지나서이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에 위치한 동로마 제국은 그 후 몇 세기동안 터키와의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

**유럽이 勝者가 되는 이유란 다름이 아니라 유럽만이 經濟 戰爭의 勝者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실제로'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未來를 위한 改革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認識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승리의 조건 ....

서로우 교수는 유럽이 21世紀 經濟 戰爭에서 最後의 勝者로 浮上하리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勝者를 가려내는 것 자체는 별로 意味가 없다. 오히려 美國이나 日本이 아닌 유럽이 最後의 勝者가 되리라고 예상하는 그 理由 자체가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유럽이 勝者가 되는 이유란 다름이 아니라 유럽만이 經濟 戰爭의 勝者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실제로'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美國은 스스로 쌓아올린 '大 城壁'을 허물고 자신이 더 이상 世界 經濟의 리더가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競爭하는 立場이라는 점을 認識하여 未來에 대한 投資에 全力을 기울여야 한다. 日本이 勝者가 되려면 文化的인 閉鎖性을 극복하고 아시아의 工業國과 함께 統合 유럽과 같은 經濟協力圈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假定은 日本이 勞動 集約的인 商品에 관한 한 純 輸入國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은 지금과 같이 과도한 貿易 黑字를 안고서는 자신이 中心이 되면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 經濟 協力圈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이 勝者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EC 統合을 마무리 짓고 러시아를 포함한 東유럽 국가들도 共同體의 一員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서로우 교수에 의하면 美國과 日本은 위에서 提示된 條件을 充足시켜야만 하는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經濟社會의 變革을 겪지 않고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유럽의 統合은 거스를 수 없는 大勢이다. 英國의 대처 首相이 유럽通貨制度(EMS: European Monetary System)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首相職에

서 물러난 것은 좋은 예이다.<sup>7)</sup> 東유럽 經濟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統合 유럽의 一員으로서 제 구실을 못한다면 西유럽 지역의 經濟的 繁榮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統合된 유럽에 繁榮이 깃들기를 기대한다면 지금 東유럽을 도와주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유럽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 유럽은 눈 앞에 닥친 '挑戰(challenge)'에 반드시 '應戰(response)'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서로우 교수는 3개 經濟 勢力 중에서 유럽만이 유일하게 주어진 挑戰에 應戰하면서 스스로 變革하는 길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準 무역블록, 中國의 역할, 그리고 韓國의 미래 ....

이 책에서는 '準 貿易블록'(quasi trading bloc)이라는 概念이 도입된다. 이는 1930년대 國際 經濟를 지배하던 貿易 블록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貿易을 감소시키고, 심지어는 特定 國家와의 貿易 자체를 금지하였던 과거의 貿易 블록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經濟 協力圈으로서 블록內 國家에게 特權을 부여하며 다른 블록과의 貿易을 管理하는 制度를 '準 貿易 블록'이라고 칭하고 있다. 統合 유럽의 貿易은 바로 이 準 貿易 블록이 管理하는 貿易이 될 것이다. 서로우 교수는 현재의 가트-브레튼 우즈 體制가 붕괴된다면 世界 곳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貿易 블록이 형성되고, 21世紀 經濟 戰爭은 바로 이렇게 형성된 블록들 간의 競爭이라고 주장한다.

서로우 교수는 中國의 經濟的 潛在力을 다소 過小 評價한 듯한 느낌을 준다. 최소한 中國 經濟에 관한 설명을 위해 할애한 분량 면에서는 그렇다. 그는 中國이 21世紀에 世界 經濟의 主役으로 성장하기에는 力不足이라는 論理를 펼친다. 현재로 봐서 中國이 가까운 장래에 世界 經濟의 版圖를 좌우할 生産力의 主體나 販賣市場으로 浮上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7) 서로우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영국의 금융계는 유럽通貨制度에의 가입을 반대하던 대처 수상을 '내다 버렸다(dump)'. 유럽通貨制度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처의 주장처럼 런던의 金融界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금융의 중심지가 프랑크푸르트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 영국 금융계의 생각이었다.

### 21世紀에 펼쳐지는 經濟 戰爭에서는 自然的인 혜택이나 歷史的 遺産에서 비롯된 比較 優位가 아니라 人爲的인 比較 優位에 의해 各國 經濟의 競爭力이 決定된다

물론 東아시아에서 中國을 중심으로 하는 準 貿易블록이 탄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이 지역의 新興 工業國들이 日本보다는 中國과 아주 밀접한 經濟 協力 關係를 형성하게 될 可能性이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中國의 基礎 科學 技術은 美國, 蘇聯에는 뒤떨어질지 모르나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sup>8)</sup> 그리고 누가 뭐래도 中國은 12억 人口를 지닌 大國이다. 中國은 저렴한 勞動力으로 全 世界의 勞動 集約的 商品 市場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면서 동시에 外國 商品에게는 엄청난 규모의 販賣 市場을 提供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市場 經濟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현재 東歐圈 國家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中國에서도 발생할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서로우 교수는 21世紀 中國 經濟의 성공 여부는 中國의 다음 世代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中國 經濟가 資本主義 體制로 무난히 進入한다면 아시아의 주변국들이 中國과 어떤 형태로든 經濟的인 結束을 갖게 될 것은 自明하다. 中國은 가까운 미래에 世界 經濟의 主役이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21世紀 經濟 戰爭의 版圖에 큰 變數로 作用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서로우 교수는 韓國 經濟의 未來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經濟가 21世紀에 先進國 隊列로 進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韓國뿐 아니라 臺灣, 싱가포르, 홍콩 등 이른바 아시아의 4 마리 용들은 21世紀 중에 先進國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韓國이 先進國으로 발돋움하기 힘든 이유로는 先進國과의 技術 競爭과 대규모 市場으로의 接近 可能性 문제, 그리고 政治 不安을 들고 있다. 서로우가 國內 政治의 不安을 얘기한 것

8) 중국은 이미 20년 전에 핵무기와 인공 위성을 거의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태였다. 또한 선진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의 두뇌는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세계 초일류급이다.

9) 최근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誌(한국어판, 1993. 2. 17字)와 타임誌(1993. 2. 22字)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다.

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별로 說得力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技術 競爭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核心을 잘 집어낸 것이다. 新興工業國에서 탈피하여 美國, 日本 등과 본격적인 競爭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技術 投資가 필요한데 과연 그럴 餘力과 價値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대규모 市場으로의 接近 문제도 누구나 인정하는 당면 문제이다. 더구나 서로 교수가 想定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는 日本과의 經濟 協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世界 다른 地域에 비하여 準貿易블록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sup>10)</sup> 韓國을 비롯한 아시아의 新興工業國은 새로운 販賣 市場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悲觀인 展望에도 불구하고 4 개국 중에서 1인당 國民所得이 가장 낮은 韓國이 先進國과의 技術 隔差를 줄이기 위한 가장 올바른 條件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는 다소 위안이 된다. 서로 교수는 臺灣과 싱가포르의 企業들이 自國 政府의 희망과는 달리 企業의 技術 水準을 先進國 水準으로 向上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低賃金 産業을 海外로 이전하여 短期 收益을 올리는 데만 열심인 것을 비판하면서, 韓國 企業들이 R&D 投資와 같은 新 技術 습득 노력, 고유 상표의 개발 등의 면에서 볼 때 先進國과의 技術 隔差를 좁히기 위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繁榮을 위한 提言 - 「協力 속의 競爭」.....

이 책은 基本的으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 우선 21世紀에 펼쳐지는 經濟 戰爭에서는 自然的인 혜택이나 歷史的 遺産에서 비롯된 比較 優位가 아니라 人爲的인 比較 優位에 의해 各國 經濟의 競爭力이 決定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生産 技術을 高度化(upscale) 하려는 노력이 없는 臺灣, 싱가포르와는 달리 韓國만이 先進國과의 技術 隔差

10) 서로우 교수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을 주축으로 準 무역블록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新 大東亞共榮圈'이 될 것이라 한다. 그러나 域內國 간의 경제력 격차, 노동력 이동의 장애, 민족 감정, 일본 문화의 포용력 부족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準 무역블록의 형성 가능성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낮다고 진단한다.

를 줄이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받은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世界 經濟가 이미 본격적인 競爭 상태로 돌입하였지만 앞으로 競爭者들 간의 協력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가트-브레튼 우즈 體制를 대신할 수 있는 國際 經濟의 새로운 룰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世界 經濟는 블록화와 무분별한 保護貿易主義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현상이 惡化되면 國際 政勢의 不安을 야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에서는 強調되고 있다.<sup>11)</sup> 21世紀의 經濟 戰爭은 비록 勝者와 敗者가 갈리는 競爭이지만 人類의 福祉 增進을 위한 競爭이다. 이것이 바로 과거 冷戰 體制에서의 軍備 競爭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人類의 福祉를 增進시키고자 하는 競爭이 世界 平和를 위협하는 길로 잘못 들어서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우 교수는 21世紀를 위한 새로운 國際 經濟 秩序의 定立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책의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역사상 가장 융성한 경제를 건설했던 사람들,  
브레튼 우즈 협정과 또는 다른 협상에 참가했던  
바로 그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우리 세대의 지도자들도  
그러한 성공을 누리길 기원하면서.’

‘To those at Bretton Woods and elsewhere  
who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constructed the most productive economy  
the world has ever seen.  
May this generation of world leaders be  
as successful’

11) 과거 두 차례 세계대전의 裏面에는 각 국 간의 무차별한 무역 전쟁이 존재하였음을 상기하라.

